

## Grace to Test & Transform in Egypt 애굽에서의 시험과 변화의 은혜 (창세기 44 장)

### God's Relentless Grace

The story continues today after Joseph had re-formed a test of envy for his brothers towards Benjamin as he favoured him with x5 the portion of food that they had. Chapter 43 ended with them having passed that test of envy as they all enjoyed themselves around Joseph's table. Now, in chapter 44 as they leave....Joseph reconstitutes another test — a test that pushes them to the limit to determine the state of their hearts...would it result in their cover up & betrayal as it had 22 years earlier? Would it bring true confession & grace? When experiencing God's severe mercy are you running to Him or away?

The Lord uses all manner of circumstances — often painful ones to expose our guilt...that by the power of the Spirit we would grieve the sin we would only otherwise try to hide...It is the Lord's firm, loving & relentless grace to discipline & correct us...for if He allowed us to continue suppressing it ... it would mean facing His terrifying wrath on the Day of Judgement.

In this passage we see the Judah's transformation take place & as we do...the Lord's purpose is that we would take heart ... that grace must test us, before it convicts & transforms us. Joseph & Judah point us particularly to the Spirit & the Son. The Lord hasn't finished with any of us yet...the good work that He began in you, He will bring it to completion at the day of Jesus Christ (Phil 1:6).

###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 베냐민에게 5 배나 더 되는 음식을 줘, 자신의 형제들 시기심을 시험한 후, 이들을 다 같이 음식을 나누며 기쁨 가운데 43 장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44 장에 와서, 그 형제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려 할 때, 요셉은 이들을 다시 한번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의 목적은 그들은 한계까지 밀어붙여,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이들은 22 년 전에 요셉에게 한 것과 같이,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배신 할까요? 아니면 진정한 고백과 은혜를 가져오게 할까요?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또한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자비를 경험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시나요, 아니면 그로부터 도망가시나요?

주님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죄에 애 통하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징계하시며 바로 잡기 위한 주님의 확고하면서도, 끈질긴 사랑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죄를 계속해서 감춰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절을 통해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 은혜의 시험 가운데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요셉과 유다는 빌 1:6 절의 배경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완성까지 인도하실 성령과 예수님을 특별히 가리킵니다.

We see that picture here in the firm grace under Joseph's scrutiny as Judah finally steps forward when the brothers have no where else to run or hide. But still, Joseph needed to test them to see what would happen when Benjamin's life was in the balance.

### Joseph's Re-formed Test (1-17)

v1, 'he commanded the steward of his house, "Fill the men's sacks with food, as much as they can carry, and put each man's money in the mouth of his sack, and put my cup, the silver cup, in the mouth of the sack of the youngest, with his money for the grain." And he did as Joseph told him.'

Joseph frames his brothers... & we need to keep in mind his purpose is to test them & lance that guilt that even now Joseph knew was being suppressed. In his wisdom, he needed to apply this final test... before revealing himself in order to reveal the state of their hearts before true repentance & reconciliation over the evil they'd committed all those years earlier.

v3, 'As soon as the morning was light, the men were sent away with their donkeys. They had gone only a short distance from the city. Now Joseph said to his steward, "Up, follow after the men, and when you overtake them, say to them, 'Why have you repaid evil for good? Is it not from this that my lord drinks, and by this that he practices divination? You have done evil in doing this.'"

What we know of Joseph is that he wouldn't have indulged the occult in divining — the pagan practice of telling the future.

*1~2 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 요셉의 또 다른 시험 (1~17)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런 시험이 목적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제들에게 드러내 이들이 회개하고 화해하기에 앞서서, 오랜 기간 동안 형제들의 마음에 억눌렸던 죄책감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5 절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 하라”*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이는 요셉이 이교도들의 관습 가운데 하나인, 점술을 통해 미래를 말하는 관습을 행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While we may wonder if Joseph goes too far in pretending to dabble in such practices....there was a very real sense he was using this cup in godly wisdom to discern the spirit of his brothers in relation to Benjamin. He'd already told them he feared God....was it wrong to use the cup under God to discern their motive? The ancient Egyptian occultists or magicians apparently divined with cups. There are Babylonian documents dating to the 18th C BC — ~ the time of Joseph that describe what's known as lecanomancy where the magician would interpret the future based on the patterns formed by oil & water in a cup. For Benjamin to have been found with Joseph's prized cup would make it the tool in God's providence for Joseph to bring divine testing. So as the steward overtakes them, he speaks & their response conveys both complete astonishment as well as sound logic when they say,

v7, "Why does my lord speak such words as these? Far be it from your servants to do such a thing! Behold the money that we found in the mouths of our sacks we brought back to you from the land of Canaan. How then could we steal silver or gold from your lord's house?"

That's a reasonable defence...based on their past integrity...why would they do such a thing? though the 10 weren't guilty of this theft....they were actually guilty of far worse...these very brothers had done things far worse — stolen Joseph's whole life....

The fact remains...we've all done things as bad if not worse than some of those things others may have wrongly accused us about. That is both sobering & humbling...& strangely liberating from the bitterness we may be tempted to feel.

18 세기 BC 고대 바벨론 문서를 보면, 요셉 시대 때 점술가들은, 컵 안에 물과 기름을 담아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패턴으로 미래를 점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시대 때 애굽의 점술가들은 컵을 신격화했습니다. 이제 이런 컵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됨은, 요셉이 이런 점술을 행했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이들을 책망할 때, 요셉의 형제들은, 매우 놀라면서도, 매우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7-8 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이들의 답변을 매우 합리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했고, 그 컵을 훔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 형제는 물건을 훔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웠을진 몰라도, 과거 요셉에게 큰 악을 행함으로 이보다 더 큰 죄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보다 사실 더 나쁜 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낮아지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우리를 쓴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They declare with passion in saying, ‘far be it from us?’ Are we not exactly the same — declare our innocence...defend ourselves...but don’t think about all other times we’ve done worse & not been caught? Sin is always right at hand...flows from our heart...always near at hand. Do you realise how prone you are to sin. John Owen said, “sin is always at our elbow...always near at hand.”

Some of the spiritual greats from the past often said was that the “The seed of every possible sin lies embedded in our soul”... While it’s right for the sake of truth & justice to be honest when we’re accused of wrong we haven’t done.....Our default response can be to protest complete innocence with the kind of passion that might suggest we’re always & completely blameless.

Initially so sure of their own innocence, they move on to make a terribly rash vow when they say, v9, “Whichever of your servants is found with it shall die, and we also will be my lord’s servants.” He said, “Let it be as you say: he who is found with it shall be my servant, and the rest of you shall be innocent.” Then each man quickly lowered his sack to the ground, and each man opened his sack. And he searched, beginning with the eldest and ending with the youngest. And the cup was found in Benjamin’s sack. Then they tore their clothes, and every man loaded his donkey, and they returned to the city.’

Round 1 of the test — though they needed time to admit past guilt before Joseph.....They pass by not deserting Benjamin when they were lawfully given every opportunity to do so. The servant, under Joseph’s direction only partially held them to their word — to recast the situation of a son of Rachel’s potential abandonment at the whim of his half-brothers. But unlike more than 2 decades earlier...when they handed Joseph over...here they refused to betray Benjamin.

요셉의 형제들은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라고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지은 더 악한 죄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우리의 결백을 주장할 때가 많지 않나요?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몇 과거의 영적 거장들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모든 가능한 죄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박혀 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일로 질책당한다면, 우리는 정의를 위해, 우리의 결백을 정직함 가운데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항상 그리고 완전히 무고하다는 암시 가운데, 이런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확신함 가운데,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9~13 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 가니라”

이전 첫 시험에서, 이 형제들은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서도, 베냐민을 버리지 않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시험에서, 그들은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들은 수십 년 전에 요셉을 버렸을 때와는 다르게,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깁니다.

V14, 'When Judah and his brothers came to Joseph's house, he was still there. They fell before him on the ground. Joseph said to them, "What deed is this that you have done? Do you not know that a man like me can indeed practice divination?"'

In these verses, Joseph questions his brothers to see how they will handle the guilt... "What deed is this that you have done?" Would they betray another son of Rachel?

Though 4th eldest...Judah after standing up before his father as the leader among the brothers prior to the journey again now stands & speaks on their behalf. V16, "What shall we say to my lord? What shall we speak? Or how can we clear ourselves?"

Again, he passes the test... no more indignant protest of innocence...just falling face down on the ground...admitting guilt — because, though he knew that in this particular incident they were innocent...he knew they were guilty of far worse...as he shows in v16b, "God has found out the guilt of your servants; behold we are my lord's servants, both we and he also in whose hand the cup has been found."

Here we see that the cup had become God's means for Joseph to discern the state of his brothers' hearts. Their posture said it all & shows their transformation...in 42:6 1st time they bowed with faces pointing down. Then in 43:28 they bowed & prostrated themselves...now here, they fall. And with that...those dreams from the one they mockingly called, 'this dreamer' were unbeknownst to them being fulfilled.

14~15 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유다는 16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16 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여기서 다시한번 그들은 시험을 통과합니다...더 분개함 가운데 따지지 않고, 땅에 엎드려 자신들의 죄를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잔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지은 더 큰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 절 후반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의 이 잔을 형제들의 마음을 분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자세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그들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42:6 절에서 그들은 처음을 엎드려 절했고, 43:28 절에서도 머리 숙여 절했고. 이번에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요셉을 “꿈꾸는 자”로 부르며, 그들이 조롱했던 요셉의 꿈이, 여기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Joseph invites them to free themselves with the final words of his test.....v17, ‘(But) he said,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do so! Only the man in whose hand the cup was found shall be my servant. But as for you, go up in peace to your father.”’ It’s a brilliant reconstitution of the spiritual test they’d failed so terribly > 2 decades earlier.....

As Joseph gives them the opportunity to save themselves & destroy their father once more ...lawfully exact vengeance on all those years of favouritism & being treated like their mother Leah as the unloved...or seek to save their youngest brother & love their father as well?

### Judah’s Transformation (18-34)

- Selfless Intercession (18-31)

Judah again steps forward to say, v18, “Oh, my lord, please let your servant speak a word in my lord's ears, and let not your anger burn against your servant, for you are like Pharaoh himself. My lord asked his servants, saying, ‘Have you a father, or a brother?’ And we said to my lord, ‘We have a father, an old man, and a young brother, the child of his old age. His brother is dead, and he alone is left of his mother's children, and his father loves him.’ Then you said to your servants, ‘Bring him down to me, that I may set my eyes on him. ‘We said to my lord, ‘The boy cannot leave his father, for if he should leave his father, his father would die.’ Then you said to your servants, ‘Unless your youngest brother comes down with you, you shall not see my face again.’

“When we went back to your servant my father, we told him the words of my lord. And when our father said, ‘Go again, buy us a little food,’ we said, ‘We cannot go down. If our youngest brother goes with us, then we will go down. For we cannot see the man's face unless our youngest brother is with us.’”

이제 요셉은 17 절에서 그들을 놓아 주며,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는 수십 년 전에 실패했던 영적 시험을 훌륭하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 자신들은 도망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을 버려서, 자신들을 차별하던 야곱에게 복수하던가, 자신의 막내 동생을 구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 유다의 변화 (18~34)

- 이타적 중재.

이런 상황에 유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26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Judah's intercession to Joseph is a model of humility that reminds Joseph that it was in direct obedience to Joseph's own pre-requisite authority over their father that they were before him with Benjamin... Judah continues,

V27, 'Then your servant my father said to us, 'You know that my wife bore me two sons. One left me, and I said, "Surely he has been torn to pieces," and I have never seen him since. If you take this one also from me, and harm happens to him, you will bring down my grey hairs in evil to Sheol.'

"Now therefore, as soon as I come to your servant my father, and the boy is not with us, then, as his life is bound up in the boy's life, as soon as he sees that the boy is not with us, he will die, and your servants will bring down the grey hairs of your servant our father with sorrow to Sheol.'

Bear in mind that Joseph was gaining new information about his father's grief & the story that his half-brothers had fabricated about him being torn to pieces.

If there's one thing that Joseph had to see in Judah's intercession...it was their deep compassion for their father — never wanting to repeat that dreadful sin of the past that had marred them with guilt & their father with grief.

And now...comes the sign that ultimately seals Judah as representative of his brothers — their corporate transformation from guilty sinners to humble & repentant sinners throwing themselves on this lord of Egypt's mercy.

유다가 중재 가운데, 그들이 베냐민을 요셉 앞으로 데려온 것은, 권위의 순종 의미로, 베냐민을 데려온 사실을 요셉에게 상기시키며, 유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27~31 절 “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 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호소 가운데 강조하기를,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지 못하면, 그의 아버지가 큰 슬픔의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다의 중재 가운데 두드러진 모습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연민입니다. 이전에 요셉을 잃으므로 큰 슬픔에 빠졌던 아버지에게 또 한 번의 슬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들의 형제를 대표하는 유다의 모습이 정점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 정점에서, 그들이 죄책감에 휩싸인 죄인의 모습으로부터, 요셉의 자비를 구하는 회개한 죄인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 Selfless Substitution (33-34)

v33, “Now therefore, please let your servant remain instead of the boy as a servant to my lord, and let the boy go back with his brothers. For how can I go back to my father if the boy is not with me? I fear to see the evil that would find my father.”

It's this final response from Judah that we see gives way to the great moment of reconciliation b/w Joseph & his brothers that we'll see next week in chapter 45. Judah willingly offers himself — to take the punishment in place of Benjamin...He freely offers himself. In every way, it points to our Lord Jesus...who became our Saviour through substitution — penal substitution — In my place condemned He stood

2 Cor 5:21 'For our sake he made him to be sin who knew no sin,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 God's Grace to Test & Transform

Joseph's testing....Judah's transformation .... they point to the grace of God to bring sinners from death & judgement to life & liberty....

In Joseph we have God's great reminder of the Spirit who stirs our consciences to test us for sin ... who shows us our sin...who convicts us of our sin — who brings us to the end of ourselves to plead mercy before God.

### 이타적인 대체. (33~34)

33 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구절이 유다의 마지막 발언이고, 이로 말미암아 다음 장 45 장에서 보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를 이루게 되는데, 유다는 자발적으로,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처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시험하시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셉의 시험과 유다의 변화는,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죄인을 살리시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요셉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시험하여, 우리의 양심을 뒤흔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Judah — transformed by grace — points us to his greater Son — His far off descendant — who didn't merely offer himself as our substitute — but willingly gave himself in exchange for us...that we would receive His perfect righteousness.

2 Cor 5: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은혜로 말미암아 변한 유다는, 위대한 아들이시며, 이들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의 완전한 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단순히 우리 죄의 대속물로 써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대가로 자신을 바치신 분입니다.

고후 5:17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